

익산시, 청년 창업 메카 '도약'

민관 협력 기술창업 '위드로컬(With Local)' 20개 팀 지원

익산시가 최대 규모의 지원으로 청년들의 창업 메카로 도약한다. 시는 이를 통해 청년들의 다양한 일자리를 만들고 안정적인 자립기반을 마련해 지역에 정착할 수 있도록 지원한다. 시는 12일 '위드 로컬(With Local) 청년 기술창업 지원사업' 오리엔테이션을 시작으로 본격적인 지원 절차에 돌입했다. 올해 처음으로 민관이 협력해 추진하는 이번 사업은 20팀 모집에 102팀의 청년이 지원해 5대 1의 높은 경쟁률을 보였으며 최근 서류·발표심사

를 통해 최종 창업팀이 선정됐다. 선정된 팀은 예비창업자와 창업 3년 이내 초기창업 기업이며 익산지역 12개팀과 타지역에 주소를 둔 8개팀 등이다. 타지역에 주소를 둔 8개팀은 사업 선정에 따라 주소를 이전할 것으로 예상돼 청년들의 인구 유입 효과가 기대된다. 총 10억원이 투입되는 이번 사업은 청년들에게 지역 특화 산업과 기술 고부가가치 미래산업을 연계한 창업을 활성화하기 위해 마련됐다. 'SK E&S(전북에너지서비스)'와 창업 전문 교육기관인 '인더독스'가 참여해 최대

4천만원의 사업화 자금을 제공하고 특화 프로그램 등을 지원한다. 이어 시는 창업 초기 어려움을 겪는 청년들에게 시설비 최대 2천만원, 6개월간 임대료 월 50만원씩을 지원하는 인프라 구축 지원 사업도 본격화한다. 만 39세 이하 청년창업가나 창업 1년 이내 기업은 신청할 수 있으며 희망하는 청년은 오는 15일까지 이메일로 신청하면 된다. 창업을 위해 치료가 필요한 청년들에게 구입비 1천만원을 지원하는 청년드림카 지원사업도 모집하고 있다. 만 39세 이하 청년창업가나 창업 3년 이내 기업은 신청할 수 있으며 오는 29일까지 방문 또는 이메일로 신청하면 된다. /익산=이재훈 기자



익산시가 지역 경제 활성화를 위해 관내 기업과 상생발전 방안을 모색하는 자리를 가졌다.

“지역경제 활성화에 크게 기여”

익산시, 하림과 상생발전 방안 모색 자리 마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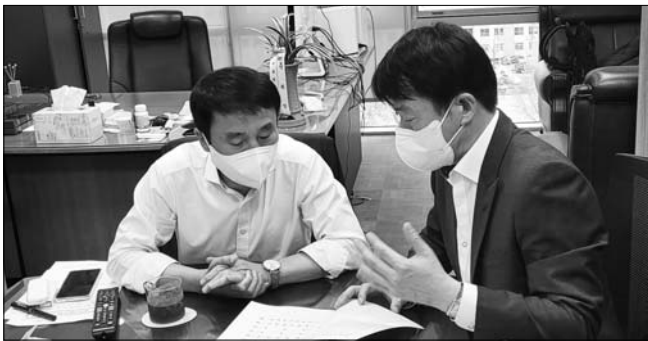
익산시가 지역 경제 활성화를 위해 관내 기업과 상생발전 방안을 모색하는 자리를 가졌다. 익산시 미래농장국 최봉섭 국장과 5개과 과장, (주)하림 정호석 대표이사를 비롯한 임직원 4명이 지난 11일 (주)하림 익산공장에서 간담회를 가졌다. 이날 간담회는 식품산업의 메카 익산시를 대표하는 항토기업 (주)하림에 대한 이해도를 높이고 상호교류 활성화와 상생협력 방안을 찾기 위한 자리로 마련됐다. 또한 동물복지 설비 등 유령형 최신 설비가 갖춰진 익산공장 견학을 통해

닭고기의 생산 과정 등 축산물 생산에 대한 견문을 넓히는 기회가 됐다. (주)하림 익산공장은 2017년 기존공장에 2천6백억원을 투입해 최신 생산 기술을 갖춘 스마트팩토리로 가장간편식을 비롯해 양념육 등 현대인의 식생활에 맞춘 다양한 편의제품을 생산하고 있다. 최봉섭 미래농장국장은 “망성면에 자리한 (주)하림 공장은 우리시 지역경제 활성화에 크게 기여하고 있다”며 “지역소재 기업과 협력해 지역산업에 활력을 불어넣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익산=이재훈 기자

내년도 국가예산 확보 '총력'

익산시, 협력방안 논의... 지역 현안·국가정책 반영 건의

익산시가 각 지자체의 치열한 국가 예산 확보 경쟁 속 최대 성과를 내기 위한 총력을 기울이고 있다. 오택립 익산시장 권한대행은 12일 국회를 방문해 국가예산 확보 협조 요청과 함께 지역 현안 사업이 국가정책에 반영될 수 있도록 적극 건의했다. 먼저 지역국회의원인 김수홍 한병도 국회의원을 만나 △국가식품클러스터 푸드파크 조성 △KTX익산역 광역복합환승센터 건립사업 등 그간 국가예산 발굴보고회를 통해 선정된 주요 사업에 대해 추진상황을 점검하고, 확보 방안을 모색하는 등 공조 체계 구축 및 공동 대응을 통한 적극적인 국비 확보 활동을 전개해 나가기로 했다. 이어 국회 상임위원 국회의원들을 방문해 △국가식품클러스터 2단계 조성 △그린바이오 혁신파크 조성, △물



익산시가 각 지자체의 치열한 국가예산 확보 경쟁 속 최대 성과를 내기 위한 총력을 기울이고 있다.

물헬스케어 클러스터 구축, △국립원헬스 통합연구센터 조성, △국립회기질환센터 유치 등 익산시 주요 현안

사업이 국가정책에 반영될 수 있도록 관심과 적극적인 지원을 요청했다. /익산=이재훈 기자

강임준 군산시장 예비후보, 현대중공업 군산조선소 재가동 착수

강임준 군산시장 예비후보(더불어민주당)가 12일 현대중공업 군산조선소 재가동 착수 등 지역경제 발전 공약을 제시했다. 강 예비후보에 따르면 현재 군산조선소에 대한 전기, 가스, 수도 연결작업을 진행하고 있다. 이달 안에 협력사 10~12업체 선정과 다음 달에는 본사 직원 배치와 조선업 생산기술인력 600명 양성에 들어간다. 이어 “현대중공업 재가동은 군산 재도약의 강력한 기반이 될 것”이라며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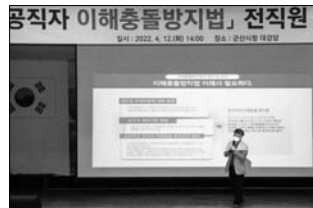


“재가동은 물론 경항공모합 등 특수목적선 친환경선박 건조 등을 통해 조선분야 일자리를 획기적으로 늘려겠다”고 했다. 군산을 2024년까지 승용차, 트럭, 버

스 SUV 등 24만대 생산능력을 갖춘 전기차 메카로 육성하겠다는 비전도 제시했다. 이를 위해 전기차충전센터, 산업용 자율주행 스캐이프 플랫폼 개발사업도 추진해 전기차 분야에서 1700개 일자리를 창출할 방침이다. 또 기업은 재생에너지를 통해 생산된 전력 사용이 국제표준으로 자리 잡도록 하고 새만금 RE100산업단지 기업 유치와 군산시 RE100 유치단 구성을 약속했다. /군산=김판곤 기자

군산시 전 직원, 이해충돌방지법 청렴교육 실시

군산시는 전 직원을 대상으로 공직자의 이해충돌방지법 교육을 실시했다고 밝혔다. 이번 청렴교육은 오는 5월 19일 법 시행에 따른 혼선을 최소화하고 이해충돌에 대한 공직자들의 이해를 돕고자 마련됐다. 코로나19 확산 방지를 위해 시 6급 이상 간부를 대상으로 대면교육을 실시했으며, 대면교육에 참석하지 못한 직원들에 대해 동영상 송출을 병행, 전 직원이 교육에 참여하도록 했다. 이해충돌방지법은 공직자가 직무를 수행할 때 자신의 사적 이해관계로 공정하고 청렴한 직무수행을 저해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한 내용을 담은 법안이다. 이번 강의는 ▲이해충돌방지법 제정 배경 및 주요내용 설명, ▲공직자가 준수해야 할 10가지 행위(신고·제출 5개, 제한·금지 5개), ▲업무처리 과정에서 겪을 수 있는 주요사례 등을



중심으로 교육이 이뤄졌다. 황철호 권한대행은 “이번 청렴교육을 통해 간부공무원부터 강화되는 각종 청렴 정책과 법령을 이해하고 준수하는 자세가 필요하다”며 “공직자의 사익추구 행위에 대해 우리 공무원 모두가 경각심을 갖고 청렴한 공직사회 조성에 최선을 다해달라”고 당부했다. 한편 시는 오는 5월 19일 시행에 앞서 이해충돌방지법의 안정적인 정착을 위해 이해충돌 방지제도 운영자침을 마련하고 이해충돌방지담당관을 지정·운영할 예정이다. /군산=김판곤 기자

지역 소식통

군산시, 코로나 행정명령 이행시설 지원금 지급

군산시는 코로나19 행정명령 이행시설 8,157개소에 재난지원금 지급을 완료했다고 12일 밝혔다. 이번 지원 대상은 지난 2020년 5월1일부터 2022년 1월 16일까지 집합 금지 및 이용 제한 등 코로나19 행정명령을 이행한 군산시 소재 시설이다. 지원금액은 시설당 전북도 지원금 80만원과 군산시 지원금 20만원을 포함한 100만원으로 시는 8,157개소에 총 81억 5,700만원을 지급 완료했다. 시는 대상자들이 모두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신청 기간을 1회 연장했으며, 군산시 공식 SNS 및 보도자료, 자생 단체 회의 등을 통해 적극 홍보했다. 또 군산시 홈페이지에 온라인 접수 시스템을 구축, 신청 절차를 간소화해 시민들의 신청 편의를 도왔다. /군산=김판곤 기자

익산시, 여름철 축산 악취 제로화 나서

익산시가 농가별 맞춤형 지원으로 여름철 축산 악취 제로화에 나선다. 12일 시는 올해 악취 저감과 악취저감시설 지원 등 6개 사업에 13억원을 투입해 축사 환경 개선에 나선다고 밝혔다. 시는 농가에 안개 분무 시설과 퇴·액비시설 밀폐, 바이오커튼을 지원해 축사 내·외부 악취 발생을 방지할 계획이다. 악취저감제의 경우 기존 급이용과 살포용을 함께 지원했으나, 올해부터는 살포용만 지원해 사업효과를 극대화할 방침이다. 또한 농가별 맞춤형 지원으로 체계적인 악취저감 정책을 추진한다. 민원이 많거나 악취관리 미흡한 농가는 축산병새 종점 관리 농가로 지정해 악취저감 컨설팅과 저감제 병행 지원으로 집중 관리한다. 환경이 개선된 농가는 깨끗한 축산농장 신청·지정을 통해 자발적으로 친환경 축산을 구현할 수 있도록 지속적인 지원에 나선다. /익산=이재훈 기자

지구를 시원하게 식혀주는 에너지 절약 실천 방법

1. 사용하지 않는 전기제품은 플러그에서 뽑기
2. 전기세가 많이 나오는 제품 아껴쓰기
3. 겨울철 실내 온도를 20도로 유지하고 내복 입기
4. 전기 사용량이 많은 시간대에는 전기 사용량을 줄이기

▶ 전주매일 에너지캠페인